



루마니아 선교 편지

2020. 7. 22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우리의 삶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

♣ 루마니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국가 비상사태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실내외 모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하는 등, 많은 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그동안 비교적 통제가 잘 되어왔는데, 요즘은 인구 비율 당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저희가 사는 도시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외출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펠디와라 교회는 지금...

실내 모임 최대 인원이 20명이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마당이나 실외 공간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펠디와라 교회는 2년 전에 교회 마당에 약식의 간이건물을 만들어 놓았기에 이곳에서 주일 예배 및 다른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초중고 학생들이 2월 말부터 방학에 들어갔고 9월 중순에 개학 예정인데, 모두 함께 모일 수가 없어 소그룹으로 3개월 일정의 제자 훈련과 개별 심방을 통해 아이들을 믿음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로 세워져 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 뜨르너베니 교회는 지금...

뜨르너베니 교회도 예배당에서 마당 쪽으로 천장만 이어 붙여 야외 공간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설이던 8명의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수집사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교회가 3주 동안 모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한 명이 당뇨와 비만으로 고위험군인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회복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아라치 교회 주일학교는 지금...

아라치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관계로 주일학교를 예전처럼 진행할 수가 없기에, 두 개의 소그룹을 만들어 3개월의 일정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각자의 신앙이 돈독히 세워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사 가정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기에 부모들을 개별적으로 심방하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기도해줍니다. 아이들을 세우는 데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 제법 세워졌다 생각되는 여자 아이들이 갑자기 열네 살, 열다섯 살에 가정을 이루고 임신을 하고, 남자 아이들도 17살이 넘으면 어느새 가장이 되어 생활고에 시달려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삶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 영혼들을 일깨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매장은 지금...

약 2년 동안 선교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도 루마니아는 야외 테라스 외에는 식당 영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하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교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매장을 통해 연결된 귀한 분들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이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애쓰려 합니다.

♣ 지도자 모임 등은 지금...

올여름에 계획되었던 뉴욕의 교회와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의 단기 선교팀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브라쇼브 책임자 아폴로 목사는 대규모 캠프장 수리에 여념이 없지만, 올해는 소규모 모임이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 기도 모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져 다시금 사명자로, 참된 헌신자로, 열정의 기도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가족들은 지금...

제가 취장 검진 차 4월에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심각해져 곧 출국길도 막힐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급히 금요일(7/24)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던 숙소가 잘 해결되어 감사합니다.

< 기도 제목 >

1. 펠디와라 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잘 무장하도록.
2. 프르너베니 교회의 감염자가 속히 회복되어 교회 모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3. 제자훈련을 받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말씀과 기도 훈련이 습관화되도록.
4. 수진이 학업, 경진이 취업, 예진이 진로, 가족의 영육 강건을 위해.

* 후원 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연 락 처 : LG폰 070-8625-7488

기도와 협력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소서!!!

루마니아 배만주.이명자(수진,경진,예진)선교사 올림